

# 여야 원내지도부 재정비... '채상병 특검' 강대강 대치

### 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국힘은 9일 새 원내 사령탑 결정 尹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국힘 이탈표 단속·민주 여론전 압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사령탑을 재정비 하고 본격적으로 22대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이어서 22대 국회 길목에서 치열한 기선제압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장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마주할 현안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단속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당내에서는 특검법이 가결될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이 50여명에 달하는데다 총선 참패 여파로 일사불란한 단일대오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앞서 김웅 의원은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나, 총선 이후 여권의 전면적인 쇄신을 강조해온 안철수 의원의 경우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본회의에 소속 의원이 빠졌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지는 새 원내 지도부의 설득력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 민심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한다는 여론전을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여당의 내부 단속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야권의 표를 끌어모아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특검법도 발의해 대외 공세의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회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이전 부지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대책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특검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다만, 다른 대책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토 사실을 묻는 말에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2대 국회 기준 171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전통이었던 운영위원회와 원내 제2당 목이 관례였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온다는 원칙에 따라 원 구성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는 7월이 돼서야 원 구성이 끝났지만, 이번에는 6월을 넘기지 않으리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주자들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한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이 여당의 '몽니'로 마냥 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본회의의 표결로 신속히 선출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맞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다 한다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올수록 그만큼 부정적인 국민 여론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동연(왼쪽) 경기지사가 지난 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장 등과 함께 헌화·분향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지사, 5·18 민주묘지 참배

### "광주 정신으로 대전환 이루겠다"...경기도 간부 등 30여명 동행

김동연 경기지사가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지사는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

에는 김 지사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제 부문 이사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경기지사와 경기도 주요 간부·기관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출신 열사 등을 추모하고 참배를 마친 뒤 방북록에 '역사의 불꽃기를 바꾼 광주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썼다.

한편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경기도 출신 열사는 5·18 시위 현장에서 행방불명된 정기영 열사, 아들과 함께 5·18에 참여한 김운식 열사 등 6명이 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

### 민주 신임 원내대표...김건희 특검법 발의·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지방정가 라운지

## 유아 심리 발달 조기 진단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지현 광주시의원 발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발달 검사 등을 해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광주지역 초·중·고생 중 5.3%가 정서 행동 관심군에 속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만큼 사전 방지 차원의 조례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지현 의원(민주·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문제 조기 진단과 관심군 유아·보호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게끔 명시했다.

최 의원은 인문학을 전공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23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광주지역 초·중·고생 5만5000여명 중 2900여명이 정서 행동 관심군에 속했다. 이는 약 5.3% 수치로 전국 평균(4.8%)을 웃돌았다.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도 1.4%(795명)로 전국 평균(1.3%)보다 높았다.

법안이 발의되면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유아기부터 정서 행동 관심군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나 기자 khn@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